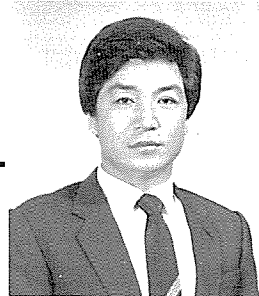


기초과학교육 활성화를



박 세 혁

〈한국과학교총 제주도중등과학교육연구회 회장〉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첨단과학기술의 육성만이 선진조국건설의 유일한 길이라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력은 현재 미국의 8% 수준이며 그 잠재력까지 고려한다면 4%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학기술력은 초·중등 학교의 과학교육에 의하여 그 기초가 육성되므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점과 육성발전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상급학교 입시제도의 문제이다.

과학교육은 실험실습을 통하여 탐구심을 키우고 창의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현실에서는 교실수업이 주가 되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과학은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하여 학습 단위수는 많으나 그 배점은 훨씬 적어 입시교육의 비중마저도 경시되고 있다.

둘째로 과학교사의 과다업무와 빈약한 과학예산이다. 과학교사들은 실험기자재의 관리, 실험의 준비와 정리 및 실험실습평가와 각종 과학행사로 일손이 분주하다. 그리고 과학발명전시회 등의 과학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생활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 예산의 부족, 과학교사의 과다업무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초, 중, 고 순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수가 현저히 적다.

셋째로 과학에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는 행사나 서클운영이 부족하다. 어릴 때 흥미있게 경험한 과학적 체험은 어른이 되어 훌륭한 과학자나 기술자가 되겠

다는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주변을 관찰하는 자세가 정립된다. 모형항공기 날리기 등을 주제로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치루어지는 청소년 과학경진대회는 대회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로 탐구심과 창의력을 북돋우는 행사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그외로 교사들의 재교육 확대, 실험기자재의 양질화, 풍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과학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몇 해 전 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설립되어 과학교육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금성사, 삼성전자, 야쿠르트 등의 기업체에서도 학생들의 과학활동을 위해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학교에 특별과학반을 설치하여 교육청에서 일부나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 미국, 소련에 이어 3위에 오른 일본의 스포츠를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육연금의 제정 등 체육진흥에 힘쓴 결과 20여년 만에 압도하였는데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국력신장의 길임을 생각할 때 하루바삐 과감한 투자와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그 주체인 학생과 교사들의 사기진작방안이 마련되어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기초과학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한다면 우리의 과학기술도 머지않아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57